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9>
(修習止觀坐禪法要)

정수행(正修行) ③

망상도 공이고 진심도 공이다

過去已滅 現在不住 未來未至 三際窮之 了不可得 不可得法 則無有心 若無有心 則一切法皆無 行者雖觀心不住 皆無所有 而非無剎那任運覺知念起

일체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반드시 일체법을 일으키는 나의 한 생각이 끝내 어떠한 형상일까 하고 회광반조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마음은 등근 모습일까, 모난 모습일까, 푸른 색깔일까, 누런 색깔일까, 또는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에 있을까 아니면 내의 공간에 있을까. 과거에 있다고 말한다면 과거는 이미 소멸하였고,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는 한 찰라도 정지함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 미래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마음을 과거·현재·미래에서 추궁해 보아도 나의 한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은 끝내 형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마음은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특정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내의 공간에 있지도 않으며, 길고 짧고 모나고 둥글지도 않으며, 푸르고 누렇게 붉고 하얗지도 않으며, 과거·현재·미래 등 일체 처소와 일체 시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당체를 구해보아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범부 중생은 만법이 내 마음밖에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여 목전에 나타난 산하대지와 명함 색공과 인아사비와 견문각지 등 일체법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허부종일 분별심으로 유전하면서 잡지도 쉬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마음은 끝내 얻지 못한다는 것과 마음을 따라 일어나 일체법 역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추궁해서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해도 그 마음은 무감각한 허공이나 목석처럼 무지하지 않다. 그 때문에 한 찰라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사물에 부딪치는 대로 모두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거울에 환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념은 유정과 무정의 경계에서 분명하게 지각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마음은 임의로 운행하면서 지각해 아는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又觀此心念以內有六根 外有六塵 根塵相對 故有識生 根塵未對 識本無生 觀生如是 觀滅亦然 生滅名字 但是假立 生滅心寂 寂滅現前 了無所得 是所謂涅槃空寂之理 其心自止

앞에서 일념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돌이켜 관찰하여 보았는데, 과거·현재·미래에서 추궁해 보아도 끝내 처소가 없었다. 그러나 처소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 도 잘라 일념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각해 아는 마음이 임의로 운행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수행자는 이 마음의 일념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엔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근이 있다. 이 ‘근(根)’에는 승의근(勝義根)과 승의근이 의지하는 부진근(浮塵根)

을 의지해서 발동하게 함으로써 그 작용을 성취한다.

가령 안근은 색경을 볼 수 있고, 이근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의근은 일체법까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내육근을 구별한 모습이다.

외적으로는 색·성·향·미·촉·법 등 육진경계가 있는데, 육근과 육진이 마주하여 상호간에 교대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육식이 일어난다.

만일 육근과 육진이 상대적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육식은 일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육근만이 홀로 일어나지 못하고 육진만이 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육근과 육진이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 육식이 그 사이에서 생기는 대상이 되며, 육근이 상대하는 주체가 되고, 육진이 상대되는 대상이 되어 피차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건립된다는 점이다.

육식 일으키지 않으면 육근·육진마저 소멸 망상 생멸은 허망한 인연 화합따라 상속해

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을 부진근이라 하는데, 이는 진실하지 않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浮)’라고 하였고, 견문각지의 작용도 없기 때문에 ‘진(塵)’이라고 명칭하였다.

다음으로 승의근은 범부 육안의 경우에 보이는 대상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오직 천안(天眼)만이 볼 수 있다.

경전에서 이 승의근에 대해 “안근은 포도가 늘어진 것처럼 생겼고, 이근은 새롭게 들들 말린 나뭇잎처럼 생겼고, 비근은 쟁으로 손톱이 늘어진 것처럼 생겼고, 설근은 초생 달처럼 생겼으며, 신근은 허리에 찬 부처님 생겼고, 의근은 어두운 방처럼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승의근은 일을 이루도록 보조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 대상경계를 비추면 식이 승의근

따라서 주체로서의 육근과, 대상으로서의 육진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육근·육진과, 그를 의지하고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육진이 모두 다 허깨비 변화처럼 무상하여 끝내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허망한 인연이 화합하여 육근과 육진이 마주하면 육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허망한 인연이 따로 분리되고 육근과 육진에서 벗어나게 되면 망상인 육식심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식은 본래 일어나지 않는데, 육근과 육진이 허망하게 화합하는 인연 때문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육근과 육진은 본래 일어나지 않으며 이도 역시 육식심의 인연으로 인해서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당체가

공인 것이다. 일으키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이와 같고, 소멸하는 경계를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본다면 마음을 관찰해 보았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법을 관찰해 보았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마음을 관찰해 보았으나 무상하며, 법을 관찰해 보았어도 역시 무상하다. 따라서 “마음을 관찰해보아도 이와 같고 소멸함을 관찰해보아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나면 소멸하고 소멸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생멸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명칭과 문자는 단지 임시적으로 성립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일어나고 인연이 분리되면 소멸하여 허망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허망하게 생멸이라는 모습을 호칭했을 뿐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돌이켜 관찰한다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법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관찰하는 마음까지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인 마음과 객관인 경계가 쌍으로 없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해진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공하고 적멸한 이치가 내 목전에 환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생멸이 소멸하면 적멸이 현전한다는 의미인데, 이때를 당하면 산하대지가 그 자리에서 어지고 허공까지도 분쇄되어 이곳엔 인상도 없고 아상도 없고 중생상까지도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영가(永嘉)대사는 “분명하게 보았더니 한 물건도 없고 역시 사람도 없고 또 부처까지도 없어 삼천대천세계가 물속에 거품이며 일체 범부와 성인이 순간에 사라지는 번개와 같다”라고 하였다.

육도범부만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세간·성문·연각·보살·부처님까지도 얻을 것이 없으며 단지 망상만 공일뿐만 아니라 진심도 역시 공인 것이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우주법계와 내 마음이 일심으로 평등할 뿐이다. 거기에 무슨 다른 물건이 있었는가.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이상에서 살핀대로 오온법을 색·수·상·행·식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중생 심리작용인 분별심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이를 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하루 빨리 번뇌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방편교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오온을 낱말로 분석하여 설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 색법과 심법을 낱말로 해부해야만 총체적인 아집상이 분해되어 그 성립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오온법이 의타기성임을 모르고, 변계소집성으로 실아실법의 아집상으로 집착합니다. 그 때문에 이 같은 ‘총체적인 이상(五蘊)’을 낱말로 분석함으로써 아집의 성립근거를 확실하게 없애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이상 ‘오온’ 낱말로 분석 아집의 성립근거 확실하게 없애

다음으로 오온은 하나인가, 아니면 많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온의 명칭은 숫자적으로도 따로의 다섯이며, 그 하나하나의 ‘온’도 많은 요소들이 한 덩어리로 응축되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다섯이라면 그것이 실아실법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의 실아법은 이처럼 다섯이라는 많은 법이 상호의 존관계에서 구성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이상’ 오온은 실아실법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 역시 실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색·수·상 등 모든 낱말의 ‘온’도 많은 요소가 중다하게 적취하여 한 덩어리로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온은 많은 법이 서로의 연관관계로 의지해서 임시적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보편의 하나가 아니므로 상주하는 실아실법도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체법법은 내적인 자아법이란 또는 여타의 법이란 모든 것이 무아상이며 공성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이러한 오온을 의지하여 임시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실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아가 성립되지 않는 낱말의 유정들이 집합하여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그 임시적인 가족이 다시 집합하여 사회·국가·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떤 실아도 성립하지 않는 무아로서의 허상일 뿐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683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50평 ● 법당: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찰(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법당 22평(현 불사중) 묘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010-3553-7897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5,800평 ● 법당 3동, 묘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22억 010-4445-5179	절터·별장·팬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 ● 자연녹지 450평(田) ● 야산 아래 남향 4차선도로 인접 ● 가액: 2억원(급 안내) 011-531-5562	포교당(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2층 법당 24평, 1층 16평 방2, 욕실, 주방 ● 묘사채 기와집, 산신각 ● 가액: 8500만원 010-6288-9777
사찰(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경주시 ● 평수: 111평(법당외부단청) ● 건물: 법당, 묘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 5개 심야보일러 설치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1억 5천5백만원(중간)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영천시 영천 경찰서 부근 ● 종교부지 200평 ● 주차장 100평, 텃밭 70평 법당, 묘사채 13평, 묘사채 50평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2억 3천만원 054)338-0048 011-769-7029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묘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 1, 5층 석탑 2, 용탑 2 ● 가액: 3억5천 ● 스님 노후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사찰(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광주에서 30분거리 ● 산세수려, 청정계곡, 호수집 ● 조립식 임법당, 황토방 ● 평수: 905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6440-5255	포교원(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 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사찰(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광주에서 30분거리 ● 산세수려, 청정계곡, 호수집 ● 조립식 임법당, 황토방 ● 평수: 905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6440-5255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오세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님	055)746-9778 / 011-870-0021